

제105호(2015. 6. 26.)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

정은미



| | |
|----------------------------------|----|
| 1.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 | 1 |
| 2.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과제 | 7 |
| 3. 해외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원 정책 | 12 |
| 4.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확보 방안 | 13 |

| | | | |
|-------|------------|--------------|--------------------|
| 감 수 |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 02-3299-4236 | hskim@krei.re.kr |
| 내용 문의 | 정은미 연구위원 | 02-3299-4311 | jeongem@krei.re.kr |
| 자료 문의 | 성진석 선임전문원 | 02-3299-4212 | jssaint@krei.re.kr |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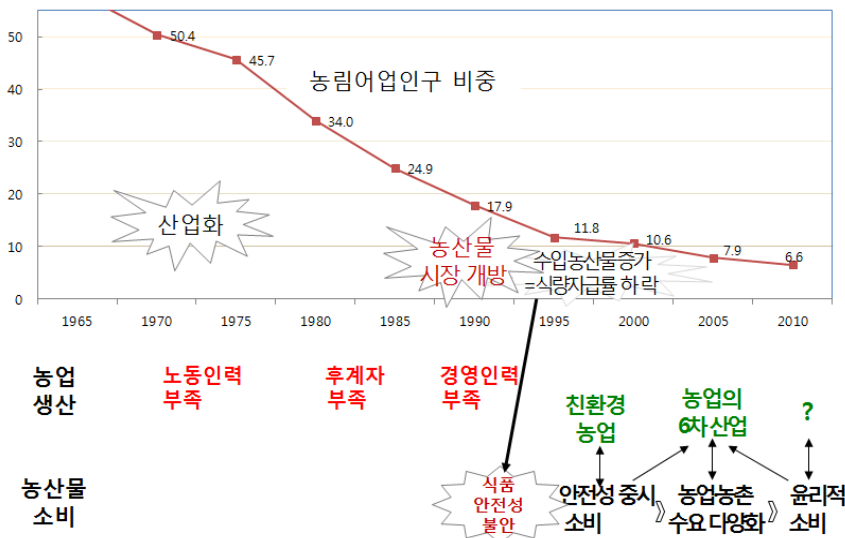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여성농업인은 노동 인력에서 경영인력, 농업의 6차 산업 주체로 농업 전면에 등장함
 - 특히 농업의 6차 산업은 농가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가족 서비스를 사회화한 것으로 여성농업인에게 경쟁력 있는 분야임
 -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나는 로컬푸드, 도농교류에서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대응은 농업의 6차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여성농업인이 각종 사업과 의사결정에 참여하기까지는 많은 제약조건이 있음. 그 제약조건을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의 지위를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지만 40~50대에 서도 여전히 '무급 가족종사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60%에 이룸
 - 가족구성원에게 농업소득에 대한 기여만큼 소득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는 96.1%로, 농가의 가계와 농업경영이 미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농지를 소유한 여성농업인은 27.4%, 소유면적도 0.2ha 정도의 소규모임
 - 최근 1년간 농업생산 외 소득활동에 참여한 여성농업인이 38.7%, 참여 의향은 50.9%에 이르지만, 소득활동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시간 없고 바쁘다'(30~40%) 이거나 '능력' 또는 '기회·정보' 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음
 - 여성농업인의 92.9%는 농촌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으나,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과 '노동이 힘들고, 소득이 적다'는 어려움이 있음
 -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과중한 노동부담을 줄이는 일'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스스로 능력을 향상하고 활동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함
- 선진국의 경우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는 조세의무와 사회보험의 책임이 동시에 있는 경영체의 경영주일 때 비로소 획득되며, 경영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남녀차별이 없음
- 여성농업인의 당면과제는 농업소득 확보와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이며, 여성농업인 정책의 제도나 사업에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 정책은 지역밀착형 정책 개발과 실천을 통해 성인지적 예산 편성의 성과를 가시화해야 함
 -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노동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 확대가 요구되며, 경제력 향상을 위해 경영능력과 사회자본 확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1.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

▣ 농업·농촌의 수요 다양화로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가

- 1990년대 이후 농업 생산의 경쟁력 약화,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전면에 등장하게 됨
- WTO 협상, FTA 체결 등으로 농산물 수입은 증가하는 한편, 규모화를 통한 전업농 정책 등 국내 농업의 경쟁력 향상 정책은 한계에 직면함. 이는 농업경영체가 규모 확대에 의한 생산 증가보다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됨
 - 기존 농가 가족 내에서만 이루어지던 일이 상품으로 거래되고,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을 방문한 소비자를 가족처럼 돌보며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농업의 6차 산업이 확대되고 있음

그림 1. 농업을 둘러싼 생산과 소비의 변화



- 특히, 식량자급률 저하, 먹거리 안전 문제로 소비자가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도농교류, 로컬푸드 등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할 농업의 주체로 여성농업인이 부각됨

“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여성농업인이 농가에서 수행하는 가족 서비스가 사회화되며 농업의 6차 산업으로 발전하지만, 농촌사회에 여전히 여성농업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존재함

”

“
 자신의 지위를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지만
 60대도 45.4%에
 불과함,
 ‘무급 가족종사자’로
 인식하는 비율은
 연령 낮을수록 높고
 40~50대도 60%에
 이릅니다.”

- 도농교류에서 손님맞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의 능력에 따라 농업의 6차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 그러나 실제 여성농업인이 각종 사업과 의사결정에 참여하기까지는 많은 제약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임. 그 제약요인을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함
-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역할은 변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 느끼는 본인의 직업적 지위는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은 42.0%임
 - 연령이 높을수록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무급 가족종사자’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음

표 1. 여성농업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지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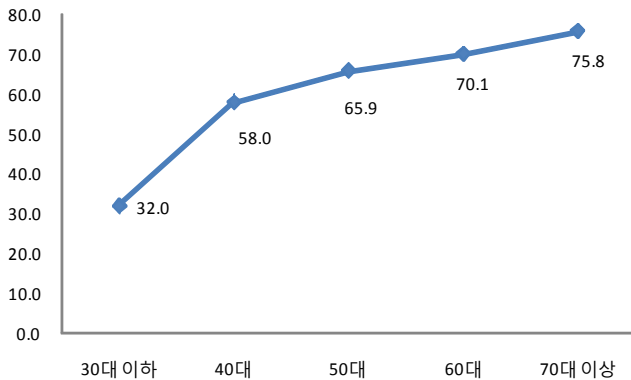
| 구 분 | 경영주 | | | 가족종사자 | | | |
|-------|--------|------|------|-------|------|------|------|
| | 공동경영주 | 경영주 | 계 | 무급 | 유급 | 계 | |
| 전체 | 20.9 | 21.1 | 42.0 | 54.2 | 2.3 | 56.5 | |
| 연령 | 30대 이하 | 13.5 | 3.8 | 17.3 | 79.3 | 3.4 | 82.7 |
| | 40대 | 27.0 | 10.6 | 37.6 | 59.1 | 3.4 | 62.5 |
| | 50대 | 29.6 | 9.1 | 38.7 | 59.3 | 1.8 | 61.1 |
| | 60대 | 21.4 | 24.0 | 45.4 | 51.9 | 1.8 | 53.7 |
| | 70대 이상 | 10.4 | 39.4 | 49.8 | 43.4 | 2.4 | 45.8 |
| 주력 품목 | 논벼 | 20.3 | 19.0 | 39.3 | 57.3 | 2.1 | 59.4 |
| | 과수 | 26.9 | 16.4 | 43.3 | 52.3 | 4.2 | 56.5 |
| | 노지채소 | 15.3 | 32.1 | 47.4 | 49.3 | 1.0 | 50.3 |
| | 시설채소 | 28.0 | 11.0 | 39.0 | 60.5 | 0.5 | 61.0 |
| | 회훼/특작 | 21.6 | 10.1 | 31.7 | 67.1 | 1.2 | 68.3 |
| | 일반 발작물 | 15.8 | 29.2 | 45.0 | 47.9 | 3.9 | 51.8 |
| | 축산 | 44.8 | 10.3 | 55.1 | 42.9 | 0.0 | 42.9 |

자료: 정은미 외(2014).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사일과 가사노동에서 여성농업인의 담당 비율

- 여성농업인이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비율은 66.2%
 - 연령별로 농사일을 절반 이상 하는 경우는 30대 이하가 32%로 가장 낮고 70대 이상이 75.8%로 가장 높음

그림 2.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절반 이상 담당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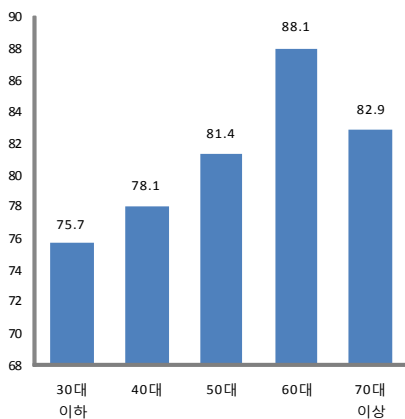
자료: 정은미 외(2014),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가사노동의 75% 이상을 여성농업인이 담당하는 비중은 82.8%
- 연령 낮고 동거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사노동 담당 비율이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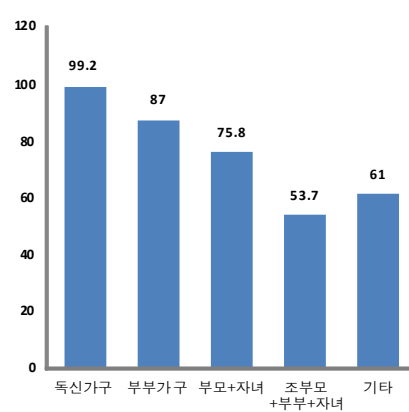
그림 3.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 75% 이상 담당 비율

* 연령별 75% 이상 가사노동 담당 비율 :
(30대 이하) 75.7% → (40대) 78.1 → (50대) 81.4 → (60대) 88.1 → (70대 이상) 82.9
* 가구형태별 75% 이상 가사노동 담당비율 :
(독신가구) 99.2% → (부부가구) 87.0 → (부모+자녀) 75.8 → (조부모+부부+자녀) 53.7

<가사노동 75% 이상 담당 비율-연령별>



<가사노동 75% 이상 담당 비율-가구형태별>



자료: 정은미 외(2014),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여성농업인의 자산 보유

- 여성농업인이 본인 명의의 농지를 소유하는 비율은 27.4%
- 연령이 높을수록 농지소유 비율과 평균 소유면적이 높음

“

농사일을 절반 이상
하는 담당하는 비율
66.2%,
가사일을 75% 이상
담당하는 비율
82.8%

”

표 2. 연령별 자산 보유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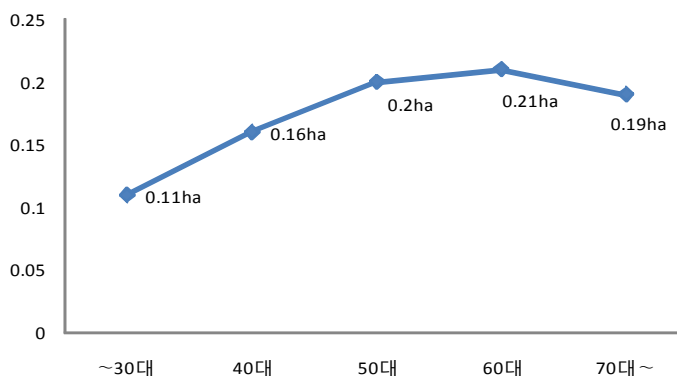
| 구 분 | 부동산 | | 동 산 | | | | 자산 없음 | | |
|-------|----------|------|-------|------|------|-------|-------|-------|------|
| | 농지 | 집/건물 | 예금 통장 | 보험 | 자동차 | 기계·시설 | | 기타 금융 | |
| 전체 | 27.4 | 23.7 | 81.1 | 43.7 | 2.7 | 1.3 | 1.1 | 10.8 | |
| 연령 | 30대 이하 | 10.6 | 8.3 | 82.3 | 60.8 | 4.5 | 2.1 | 3.8 | 17.0 |
| | 40대 | 16.3 | 13.9 | 85.8 | 72.5 | 7.1 | 3.0 | 3.1 | 7.2 |
| | 50대 | 23.2 | 17.2 | 86.1 | 65.0 | 3.4 | 1.3 | 0.7 | 8.0 |
| | 60대 | 29.9 | 26.0 | 82.1 | 38.3 | 1.5 | 1.1 | 0.8 | 9.7 |
| | 70대 이상 | 38.9 | 36.3 | 72.4 | 9.9 | 0.6 | 0.5 | 0.1 | 15.3 |
| 경작 면적 | 0.5ha 미만 | 36.7 | 36.2 | 76.2 | 37.3 | 2.6 | 1.3 | 0.7 | 12.2 |
| | 0.5~1ha | 24.6 | 22.2 | 80.4 | 40.1 | 1.8 | 0.8 | 1.8 | 12.6 |
| | 1~2ha | 20.3 | 13.9 | 85.0 | 48.0 | 1.3 | 0.8 | 0.0 | 9.8 |
| | 2~3ha | 25.0 | 12.8 | 86.7 | 52.6 | 3.8 | 1.4 | 0.7 | 6.3 |
| | 3ha 이상 | 21.4 | 13.3 | 87.2 | 60.3 | 7.3 | 3.4 | 2.9 | 6.3 |

자료: 정은미 외(2014),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여성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비율
27.4%에 불과,
농지 소유도 0.2ha
내외로 소규모

- 연령별 소유한 농지의 규모는 농지규모가 가장 큰 60대일지라도 0.21ha에 불과함

그림 4. 연령별 토지 소유 규모



자료: 정은미 외(2014),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업활동 분야별 여성농업인의 참여율

- 여성농업인은 수확작업, 수확 후 관리와 출하 관리에 참여율이 높음
 - 여성농업인이 50% 이상 참여하는 일은 수확과 수확 후 출하준비가 77.1~78.6%로 가장 높고, 재배작물 결정이나 판매처 결정에 55.7~59.1%

참여하며 파종, 육묘, 정식 등 생산관리에 53.1% 참여함

- 생산에 관한 의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높지만 기술·정보나 재무관리의 의사는 남편의 독자적인 결정이 50% 이상임. 농업경영일지도 주로 남편이 작성하는 비율이 49.4%이지만 경영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농가도 23.6%에 이름

표 3. 농업활동 분야별 관여 정도

단위: %

| 구분 | 주로 내가 | 나와 남편 둘이 비슷 | 주로 남편 | 다른 가족/고용 노동자 | 하지 않음 | 여성 참여율* | |
|---------------------|----------------|----------------|----------|--------------------|----------|------------|------|
| 생산 · 출하 관리 | 논·밭갈이 | 5.6 | 28.7 | 49.9 | 12.5 | 3.3 | 34.3 |
| | 파종, 육묘관리, 정식 | 9.7 | 43.4 | 35.6 | 8.3 | 3.0 | 53.1 |
| | 농약살포 | 7.1 | 30.0 | 53.1 | 9.1 | 0.7 | 37.1 |
| | 비료주기 | 9.5 | 37.8 | 45.8 | 6.2 | 0.6 | 47.3 |
| | 수확 작업 | 12.0 | 66.6 | 15.7 | 5.5 | 0.1 | 78.6 |
| | 수확 후 관리(건조·세척) | 15.2 | 62.6 | 16.0 | 3.3 | 3.0 | 77.8 |
| | 출하준비(선별·포장) | 14.4 | 62.7 | 17.8 | 2.9 | 2.2 | 77.1 |
| 재무 · 의사 결정 | 외부인력(고용) 관리 | 13.5 | 28.3 | 41.6 | 4.6 | 12.0 | 41.8 |
| | 재배 작물 결정 | 12.4 | 46.7 | 36.6 | 2.9 | 1.5 | 59.1 |
| | 판매처 결정 | 13.8 | 41.9 | 40.4 | 2.6 | 1.2 | 55.7 |
| | 농사기술 및 판매정보 | 10.1 | 23.4 | 56.9 | 3.5 | 6.2 | 33.5 |
| | 농사 및 경영 일지 기록 | 8.6 | 15.9 | 49.4 | 2.6 | 23.6 | 24.5 |
| | 영농자금 대출·상환 결정 | 8.2 | 27.0 | 49.9 | 2.7 | 12.2 | 35.2 |
| | 농지·기계 구입 결정 | 7.4 | 25.2 | 56.2 | 2.6 | 8.6 | 32.6 |
| 축산 | 생활용 금전 관리 | 41.6 | 39.5 | 14.7 | 2.0 | 2.1 | 81.1 |
| | 먹이주기 | 13.1 | 45.4 | 36.6 | 4.4 | 1.5 | 58.5 |
| | 방역·위생관리 | 6.4 | 27.0 | 58.5 | 7.8 | 1.5 | 33.4 |
| | 축사 청소, 퇴비정리 | 7.3 | 30.5 | 56.7 | 4.6 | 2.0 | 37.8 |
| | 착유 | 2.8 | 14.4 | 23.7 | 3.0 | 57.9 | 17.2 |
| 기타 사육관리 | 8.4 | 44.8 | 41.4 | 4.0 | 4.1 | 53.2 | |

주: 여성참여는 '내가 주로', '나와 남편 둘이 비슷'의 합계임.

□ 농가에서 기여에 따른 소득 배분 여부

- 여성농업인 대부분(96.1%)이 농업소득을 별도로 배분하지 않고, 미배분 시 소득은 남편과 공동(45.5%), 여성 본인(31.4%), 남편(17.7%)이 관리함
 - 이는 농가의 가계와 농업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냄

* 농업소득 미배분 비율 :
(30대 이하) 92.3% → (40대) 95.3% → (50대) 97.0% → (60~64세) 96.6%

자료: 정은미 외(2014),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여성농업인은
수확과 수확 후
출하준비 등에
참여율이 높고, 농가
대부분(96.1%)은
구성원에게
농업소득을
분배하지 않아
농업경영과 가계가
미분리된 상태임
”

“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비율은
매우 낮음.
2015년 3월
전국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여성 조합장은
0.4%에 불과함

□ 지역 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나 농가 내에서 소득을 관리하거나 발언권이 강해졌다는 정도임
 - 농가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농지나 가옥 등의 부동산은 70% 이상 남편 명의이고, 토지 매매, 영농자금 대출 등 의사결정에 여성이 관여하는 비율이 40% 이하임
- 더 중요한 것은 농촌사회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정작 지역사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는 현실임
 - 예를 들면, 2015년 3월 15일 실시된 전국 농협 1,326개소의 조합장 직선에서 여성조합장은 단 5명으로 비율은 0.4%에 불과함
- 한편, 여성농업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공무원의 조직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
 - 여성농업인을 농업의 6차 산업 담당 주체로 인식하는 경우는 농식품부,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의 순으로 높고 여성 공무원의 7%, 20~30대 공무원의 8%가 인식하고 있음
 - 공무원이 인식하는 여성농업인 이미지에서 성별, 연령별 차이는 크지 않지만 남성과 20~30대 공무원이 여성농업인을 가족종사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표 4. 여성농업인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단위: %

| 구 분 | 전통식품 생산~가공 기능보유자 | 농업경영주 | | | 가족종사자 | | | | |
|--------|------------------------|----------|-------------|------|-------------|----------|----------|------|------|
| | | 생산 주력 | 생산~판매 주력 | 계 | 생산~판매 보조 | 생산 노동 | 생산 보조 | 계 | |
| 조 직 | 농식품부 | 16.7 | 16.7 | 33.3 | 33.4 | 0.0 | 0.0 | 33.3 | 33.4 |
| | 광역 농정과 | 0.0 | 15.4 | 30.8 | 46.2 | 11.5 | 19.2 | 23.1 | 53.8 |
| | 기초 농정과 | 2.9 | 16.4 | 20.7 | 37.1 | 22.1 | 15.7 | 21.4 | 59.2 |
| | 농촌진흥청 | 8.0 | 8.0 | 40.0 | 48.0 | 20.0 | 16.0 | 8.0 | 44.0 |
| | 농업기술원 | 10.5 | 7.9 | 44.7 | 52.6 | 7.9 | 21.1 | 7.9 | 59.2 |
| | 농업기술센터 | 1.7 | 13.8 | 35.7 | 49.5 | 17.5 | 16.2 | 13.8 | 47.5 |
| 성 별 | 여성 | 6.5 | 10.4 | 37.7 | 48.1 | 8.4 | 22.7 | 13.6 | 44.7 |
| | 남성 | 1.6 | 15.3 | 30.2 | 45.5 | 21.4 | 13.8 | 16.7 | 51.9 |
| 연 령 | 20~30대 | 7.6 | 11.4 | 26.6 | 38.0 | 15.2 | 20.3 | 19.0 | 54.5 |
| | 40대 | 4.7 | 13.4 | 33.1 | 46.5 | 14.2 | 16.5 | 16.5 | 47.2 |
| | 50대 이상 | 1.2 | 14.7 | 33.4 | 48.1 | 19.6 | 15.3 | 14.7 | 49.6 |

자료: 정은미 외(2013),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 방안(2/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과제

□ 농업생산 이외의 소득활동 현황과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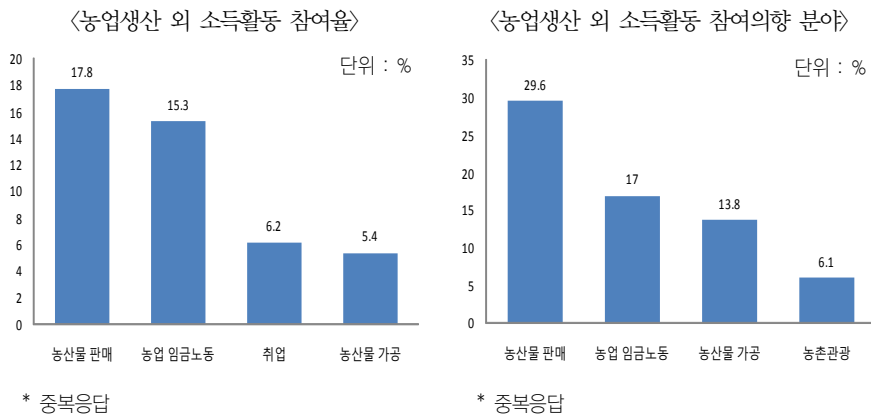
- 최근 1년간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 외 소득활동 참가율은 38.7%로 분야별 5~20% 정도이고, 특정 시기에 일부 참여하는 정도임
 - 농산물 판매 및 농업 임금노동의 비중이 높고 농촌관광은 낮음

* 농업생산 외 소득활동 참여 현황 :
 - 농산물 판매 17.8%, 농업 임금노동 15.3%, 취업 6.2%, 농산물가공 5.4%

자료: 정은미 외(2014).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그러나 현재 농업생산 외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해 보고 싶다는 의향은 50.9%
 - 농산물 판매, 농업임금노동, 농산물 가공 순으로 참여 의향이 높음

* 참여 의향 분야 :
 - 농산물 판매 29.6%, 농업 임금노동 17.0%, 농산물 가공 13.8%, 농촌 관광 6.1%



“

최근 1년간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 외 소득활동
 참가율 38.7%,
 참여 의향은 50.9%

”

□ 농업생산 이외의 소득활동 희망 이유 및 장애요인

-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 외 소득활동을 희망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생활비 부족, 추가소득 마련)가 큼
 - 여성농업인단체의 임원이 40~50대이므로 이 연령대 일반 여성농업인과 비교해 보더라도 경제적인 요인으로 소득활동을 원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 외
소득활동을
희망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70대 27%부터
40대 44%까지
높게 나타남
”

- 여성농업인이 생활비 부족의 이유로 소득활동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의 비율은 60%로 높게 나타남. 특히 광역지자체의 농정과, 농촌진흥청의 공무원과 50대 이상, 남성 공무원의 비중이 높음

표 5. 농업의 2·3차 소득활동 희망 이유

단위: %

| 구 분 | 생활비 부족 | 추가소득 마련 | 자신의 재능활용 | 사회생활 욕구 | 유희시설 활용 | 의향 없음 | |
|--------|--------|---------|----------|---------|---------|-------|------|
| 여성 농업인 | ~39세 | 19.2 | 15.4 | 15.4 | 19.2 | 7.7 | 23.1 |
| | 40~49세 | 17.0 | 27.0 | 9.9 | 9.9 | 1.4 | 34.0 |
| | 50~59세 | 9.8 | 31.7 | 8.1 | 2.9 | 1.2 | 46.1 |
| | 60~64세 | 7.4 | 32.3 | 7.4 | 0.8 | 0.4 | 51.8 |
| | 65세~ | 5.3 | 21.7 | 2.0 | 1.0 | 0.3 | 69.4 |
| 단체 입원 | 생활개선회 | 26.8 | 25.0 | 26.8 | 17.9 | 5.4 | 7.1 |
| | 한여농 | 26.4 | 41.7 | 27.8 | 8.3 | 5.6 | 4.2 |
| | 전여농 | 47.1 | 19.6 | 15.7 | 7.8 | 0.0 | 5.9 |

자료: 정은미 외(2013),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 방안(2/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6. 공무원이 바라본 여성농업인의 소득활동 희망 이유

단위: %

| 구 분 | 생활비 부족 | 추가소득 | 재능 활용 | 사회생활 욕구 | 타인 권유 | 유희시설 활용 | |
|-----|------------|------|-------|---------|-------|---------|-----|
| 전체 | 59.8 | 21.2 | 11.7 | 5.5 | 1.3 | 0.6 | |
| 소 속 | 농림축산식품부 | 50.0 | 16.7 | 33.3 | 0.0 | 0.0 | 0.0 |
| | 광역 농정과 | 73.1 | 11.5 | 7.7 | 3.8 | 0.0 | 3.8 |
| | 기초 농정과 | 62.9 | 19.3 | 9.3 | 5.7 | 2.9 | 0.0 |
| | 농촌진흥청 | 64.0 | 12.0 | 20.0 | 4.0 | 0.0 | 0.0 |
| | 도 농업기술원 | 47.4 | 34.2 | 13.2 | 2.6 | 0.0 | 2.6 |
| | 시·군 농업기술센터 | 58.6 | 22.2 | 11.8 | 6.1 | 1.0 | 0.3 |
| 성 별 | 여성 | 56.5 | 26.6 | 13.6 | 2.6 | 0.0 | 0.6 |
| | 남성 | 61.1 | 19.0 | 10.8 | 6.6 | 1.9 | 0.5 |
| 연 령 | 20~30대 | 45.6 | 24.1 | 21.5 | 5.1 | 2.5 | 1.3 |
| | 40대 | 59.8 | 26.0 | 9.4 | 3.9 | 0.0 | 0.8 |
| | 50대 이상 | 63.2 | 18.7 | 10.1 | 6.1 | 1.5 | 0.3 |

자료: 정은미 외(2013),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 방안(2/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업생산 외 소득활동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모든 연령대에서 ‘시간 여유가 없다, 바쁘다’가 30~40%임
 - 연령이 낮거나 농촌에 거주한 기간이 짧을수록 ‘기회나 정보, 자본이 부족하다’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고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업생산 외 경제활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음

표 7. 농의 소득활동 참여의 애로사항

단위: %

| 구분 | 필요 없음1) | 농사일 바쁨 | 신체적 한계 | 능력 부족 | 기회·정보 부족 | 자본 부족 | 인맥 부족 | 가족이 반대 | 판매 어려움 | |
|------|---------|--------|--------|-------|----------|-------|-------|--------|--------|-----|
| 전체 | 25.1 | 19.8 | 15.0 | 15.0 | 13.3 | 5.8 | 2.3 | 1.6 | 1.4 | |
| 연령 | ~30대 | 19.5 | 22.9 | 2.0 | 18.7 | 11.0 | 12.2 | 1.0 | 5.3 | 0.6 |
| | 40대 | 16.1 | 17.9 | 8.5 | 16.3 | 20.7 | 12.7 | 2.8 | 3.3 | 1.5 |
| | 50대 | 19.9 | 25.8 | 13.2 | 15.2 | 15.0 | 4.8 | 3.7 | 0.5 | 1.5 |
| | 60대 | 26.2 | 21.6 | 15.2 | 14.2 | 12.0 | 4.8 | 2.3 | 1.7 | 1.7 |
| | 70대~ | 35.2 | 12.0 | 23.5 | 14.0 | 9.7 | 2.4 | 1.2 | 0.6 | 1.2 |
| 영농규모 | 소규모 | 24.7 | 15.1 | 19.0 | 15.5 | 14.5 | 6.1 | 2.2 | 1.0 | 1.6 |
| | 중소규모 | 27.4 | 19.6 | 13.6 | 15.3 | 11.6 | 7.0 | 2.1 | 1.6 | 1.0 |
| | 중규모 | 24.6 | 24.6 | 10.5 | 13.1 | 15.1 | 4.9 | 3.0 | 1.8 | 0.8 |
| | 중대규모 | 20.4 | 31.0 | 11.8 | 15.8 | 9.1 | 3.4 | 2.4 | 4.0 | 2.1 |
| | 대규모 | 27.2 | 32.0 | 9.6 | 11.8 | 9.2 | 1.2 | 3.2 | 1.8 | 4.0 |

주 1) 현재의 노동만으로도 힘들어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을 할 여유가 없음이 포함됨.
 자료: 정은미 외(2014),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촌 거주 의향 및 농촌생활·농업의 어려움

- 농촌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는 여성농업인은 92.9%
 - 농촌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이유는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건강에 좋다', '도시생활보다 여유가 있다'는 순으로 나타남

표 8. 농촌 거주 지속하는 이유

단위: %

| 구분 | 자연환경 쾌적, 건강에 좋음 | 도시생활보다 여유 있음 | 생활비가 적게 든다 |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 있음 | 이웃과 가깝고 친구 많다 | 농사일은 자율성 있다 |
|------|-----------------|--------------|------------|------------------|---------------|-------------|
| 전체 | 28.1 | 21.3 | 16.4 | 15.9 | 12.0 | 5.5 |
| ~30대 | 34.8 | 23.2 | 12.1 | 13.8 | 3.5 | 7.4 |
| 40대 | 30.3 | 25.1 | 17.5 | 12.6 | 4.3 | 9.1 |
| 50대 | 29.2 | 24.0 | 17.2 | 14.6 | 8.7 | 6.1 |
| 60대 | 23.7 | 20.6 | 18.6 | 18.2 | 13.7 | 4.7 |
| 70대~ | 29.1 | 15.4 | 12.7 | 17.6 | 22.2 | 2.9 |

자료: 정은미 외(2014),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촌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교통, 의료시설 등 생활 인프라 부족 등이 가장 많이 지적됨
 -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시간을 갖거나 사생활 보호'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 인프라 부족을 어려움으로 여김

“
 소득활동 참여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시간 없고, 바쁘다’가 30~40%로 높고, 그 다음으로 ‘능력’ 이나 ‘기회·정보’ 부족임
 ”

“
 여성농업인의
 92.9%는
 농촌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으나
 농업·농촌생활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과
 ‘노동이 힘들고,
 소득이 적다’는
 어려움이 있음
 ”

표 9. 여성농업인이 인식하는 농촌생활에서 어려움

단위: %

| 구 분 | 교통 불편 | 의료시설 멀다 | 개인/취미 활동 어렵다 | 개인시간 갖기 어렵다 | 사생활 보장 안된다 | 친구/동료가 없다 | 여성에 대한 편견 심하다 | 이웃과 친해지기 어렵다 | 가정 내 역할위치 애매하다 |
|--------|-------|---------|--------------|-------------|------------|-----------|---------------|--------------|----------------|
| 전체 | 31.1 | 25.5 | 11.7 | 10.8 | 7.5 | 1.7 | 1.6 | 0.9 | 0.7 |
| 30대 이하 | 31.1 | 15.2 | 22.9 | 9.2 | 9.4 | 6.6 | 0.4 | 0.7 | 0.0 |
| 40대 | 25.5 | 17.3 | 20.4 | 14.3 | 6.1 | 2.5 | 2.4 | 1.8 | 1.2 |
| 50대 | 28.0 | 22.6 | 14.5 | 14.2 | 7.9 | 1.4 | 1.8 | 0.8 | 1.0 |
| 60대 | 30.7 | 27.6 | 9.4 | 10.7 | 7.5 | 0.9 | 1.6 | 1.1 | 0.5 |
| 70대 이상 | 37.6 | 33.1 | 3.9 | 6.3 | 7.3 | 0.9 | 1.3 | 0.4 | 0.5 |

자료: 정은미 외(2014).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여성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농업노동이 힘들다’, ‘소득이 적다’ 등의 순임
 - 연령이 높을수록 ‘노동이 힘들고’, ‘소득이 적다’는 비중이 높음

표 10. 여성농업인이 인식하는 농업활동에서 어려움

단위: %

| 구 분 | 노동이 힘들다 | 소득이 적다 | 농사/가사 병행 어렵다 | 수확기 외 현금 확보 어렵다 | 농업기술이 어렵다 |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 | |
|------|---------|--------|--------------|-----------------|-----------|--------------|-----|
| 전체 | 37.5 | 29.9 | 13.7 | 9.2 | 4.5 | 1.0 | |
| 연령 | 30대 이하 | 28.5 | 28.7 | 20.8 | 7.7 | 5.0 | 0.6 |
| | 40대 | 30.5 | 28.4 | 19.4 | 8.8 | 6.2 | 1.2 |
| | 50대 | 36.6 | 29.0 | 15.6 | 9.5 | 4.4 | 0.9 |
| | 60대 | 38.5 | 30.4 | 13.3 | 7.7 | 5.0 | 0.8 |
| | 70대 이상 | 42.8 | 31.3 | 7.7 | 11.2 | 3.1 | 1.2 |
| 영농규모 | 소규모 | 39.7 | 31.6 | 11.1 | 8.6 | 4.4 | 1.0 |
| | 중소규모 | 36.4 | 30.0 | 14.4 | 9.1 | 5.2 | 0.6 |
| | 중규모 | 36.7 | 26.8 | 16.0 | 10.1 | 4.6 | 1.0 |
| | 중대규모 | 33.6 | 28.8 | 17.7 | 10.1 | 3.3 | 1.1 |
| 대규모 | 30.7 | 26.5 | 20.3 | 11.8 | 2.1 | 2.6 | |

자료: 정은미 외(2014).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여성농업인의 시급한 과제

- 농업활동과 농촌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과 ‘복지시설 및 제도 확대’ 순으로 조사됨
 -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과중한 노동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가장 큰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표 11. 여성농업인이 인식하는 시급한 과제

단위: %

| 구 분 |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 | 복지시설·제도 확대 |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 보육·교육 시설 확충 | 기술·자금 지원 | 전문경영교육 강화 | |
|-----|--------------|------------|-------------|-------------|----------|-----------|-----|
| 전체 | 31.3 | 28.7 | 19.6 | 11.1 | 7.5 | 1.8 | |
| 연령 | 30대 이하 | 35.0 | 30.1 | 13.3 | 15.4 | 5.6 | 0.7 |
| | 40대 | 24.6 | 29.6 | 19.7 | 13.1 | 10.0 | 3.0 |
| | 50대 | 29.7 | 28.4 | 18.8 | 12.5 | 7.4 | 3.0 |
| | 60대 | 30.9 | 28.6 | 21.7 | 10.4 | 7.3 | 1.2 |
| | 70대 이상 | 35.8 | 28.2 | 19.6 | 8.4 | 6.9 | 1.0 |
| 영규모 | 소규모 | 34.4 | 25.5 | 22.0 | 11.4 | 5.7 | 1.1 |
| | 중소규모 | 28.9 | 30.6 | 17.2 | 12.1 | 8.9 | 2.2 |
| | 중규모 | 30.9 | 31.6 | 16.0 | 10.3 | 8.1 | 2.8 |
| | 중대규모 | 26.1 | 30.6 | 19.7 | 10.2 | 10.6 | 2.7 |
| | 대규모 | 25.0 | 32.5 | 28.4 | 4.4 | 9.0 | 0.6 |

자료: 정은미 외(2014).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여성농업인의 활동력 증대를 위한 과제

- 사회경제적 활동에 여성농업인의 참여 의향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름
- 여성농업인은 ‘스스로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33.3%)하거나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의식을 깨우치는 것’(21.9%)을 우선 순위로 인식함

표 12. 여성농업인이 인식하는 활동력 증대를 위한 과제

단위: %

| 구 분 | 여성 스스로 | | 여성 활동에 대한 | | 기회·정보 제공 | 여성 네트워크 구축 | 현장 교육·견학 확대 | 농업경영 확대 | 기술·마케팅 교육 확대 | |
|-----|--------|----------|-----------|----------|----------|------------|-------------|---------|--------------|-----|
| | 능력 향상 | 의욕·의식 향상 | 가족의 이해 | 농촌사회의 이해 | | | | | | |
| 전체 | 33.3 | 21.9 | 16.2 | 8.2 | 6.9 | 5.3 | 3.1 | 2.6 | 2.5 | |
| 연령 | 30대 이하 | 33.8 | 17.1 | 23.8 | 10.0 | 1.5 | 6.7 | 1.7 | 2.9 | 2.4 |
| | 40대 | 34.2 | 20.6 | 14.6 | 8.0 | 8.0 | 5.0 | 2.7 | 2.8 | 4.0 |
| | 50대 | 34.5 | 22.5 | 14.1 | 7.7 | 6.9 | 5.7 | 3.8 | 2.4 | 2.3 |
| | 60대 | 30.4 | 24.0 | 17.8 | 8.5 | 7.9 | 4.2 | 2.9 | 2.4 | 1.8 |
| 영규모 | 소규모 | 30.2 | 24.3 | 18.2 | 8.4 | 6.8 | 5.5 | 2.6 | 2.2 | 1.8 |
| | 중소규모 | 36.3 | 17.4 | 14.8 | 9.1 | 7.4 | 5.4 | 4.2 | 2.6 | 2.9 |
| | 중규모 | 33.7 | 24.5 | 15.5 | 7.2 | 6.6 | 4.9 | 2.5 | 2.0 | 3.1 |
| | 중대규모 | 35.3 | 23.5 | 15.7 | 7.2 | 4.5 | 5.2 | 3.0 | 3.1 | 2.6 |
| | 대규모 | 29.1 | 20.5 | 15.5 | 8.9 | 10.2 | 5.0 | 2.5 | 6.4 | 1.9 |

자료: 정은미 외(2014).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과중한 노동
부담을 줄이는 일’
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능력을 향상하고
의욕·의식을 높여
여성농업인 스스로
활동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함
”

“
선진국의 경우
여성농업인은
조세의무,
사회보험의
책임이 있는
경영체의
경영주일 때
사회적 지위를 얻고,
경영주 지원에
남녀차별은 없음

”

3. 해외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원 정책

□ 선진국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 선진국도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로 농업경영에서 노동인력뿐만 아니라 젊고 유능한 농업경영인도 부족하게 됨.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에 변화가 나타남
 - 후계자가 없는 경영체가 발생하고 이것이 농업생산의 전반적인 위기로 확산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농업의 보조자로 여겼던 여성농업인을 남성과 동등한 경영인으로서 농업경영이나 지역농업의 담당자로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지위를 부여하게 되었음
 - 프랑스의 경우도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향상되고 사회참여가 확대된 역사는 불과 30여 년 정도로 짧은 편임

□ 선진국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변화 요인

- 농업경영체는 사업체로 인증받고 조세상 사업자로 등록되는 과정을 거치며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얻음
 - 가족농도 농업경영체로 인정되면, 그에 따른 조세 의무와 사회보험의 책임이 있고, 이 경영체의 경영주일 때 비로소 사회적 지위를 부여함. 이는 농업인이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해당됨

-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가족농을 기반으로 하는 농가경제가 법적인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고 그 농업경영체 안에서 여성이 경영주이면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거침

- 반면 일본은 1980년대 농업경영체 등록 시행을 계기로 여성농업인이 회계를 담당하며 경영주라는 지위에 관한 의식 향상이 있었음

□ 선진국 여성농업인 정책의 특징

- 프랑스와 이탈리아 농정에서 여성농업인에게 유리한 지원이나 차별적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농정에서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남녀차별이 없다는 의미임

- 일본 농정은 경영 다각화를 위해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 공적자금과 보조사업의 지원에 우대 혜택을 줌.
 - 일본 농정에서도 여성농업인을 우대하는 경우는 가족경영협정을 통해 경영주로서 인정받을 때임. 이러한 사실은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이 농업인이라는 인적 조건 외에 농업경영체로서 물적 조건을 구비한 농업경영주가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함
- 유럽과 일본의 차이는 사회적으로 남녀평등을 실현한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임.
 - 일본이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녀차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량껏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지원제도를 통해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것임. 일본은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농촌사회에서 지원제도를 통해 여성농업인에게 유리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4. 여성농업인 사회경제적 지위 확보 방안

4.1. 여성농업인의 당면과제

- 첫째, 농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재생산 가능 소득 확보
 - 농업인의 노동 및 경영참가는 증가하지만 농업소득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 현재 농업경영체의 위기이자 과제임. 여성농업인의 당면과제도 농업경영체 존립을 위협하는 시장경제에 대한 대응임.
 - 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과 노동에 참여한 만큼 경제적인 보상을 기대하고 새로운 농외 소득활동의 의향이 있음
- 둘째, 과중한 노동의 경감
 -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이 살기 좋은 농촌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농촌사회에 아직
남녀차별이 존재하는
일본은,
‘가족경영협정’으로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
인정될 경우 유리한
혜택이 있음

”



여성농업인의
당면 과제는
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농업소득
확보와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이며,
여성농업인 정책의
제도나 사업에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이 농업 노동의 과중함이나 교육 여건 및 문화 활동이 어려운 농촌 생활환경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교육 참여나 문화생활을 맘껏 향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농사와 가사를 병행하느라 바쁘고 시간이 없기 때문임
 - 여성농업인이 새로운 활동을 하고자 해도 가장 큰 걸림돌은 일·가사 병행으로 인한 과중한 노동임

□ 셋째,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낮은 체감도

- 2001년 「여성농업인육성법」을 제정하고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늦은 것은 아니지만, 정작 여성농업인이 느끼는 정책의 체감도는 낮음
 - 여성농업인 정책에 따른 제도나 사업을 알고 있더라도 직접 이용하거나 참여한 제도나 사업은 5% 미만에 불과함
 - 우리나라도 농업경영체¹⁾ 등록의 경영주 제도가 있으나 농업경영체가 개별 농업인과 구별되는 사업체라는 점이 불분명하므로,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 인정받더라도 특별히 유리한 점이 없음

표 13. 여성농업인의 관련 정책의 인지도 및 이용·참여도

단위: %

| 구 분 | | 인지도 | 참여도 |
|-----|---------------------|------|-----|
| 제도 | 영농후계자 여성 우대제도 | 40.9 | 2.9 |
| | 농협 복수 조합원제도 | 27.9 | 3.0 |
| | 출산여성을 위한 농가도우미제도 | 35.8 | 0.9 |
| | 사고발생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제도 | 27.0 | 2.1 |
| | 고령취약농가에 가사도우미 지원제도 | 36.8 | 1.8 |
| |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 제도 | 47.1 | 3.0 |
| | 정부 농업 관련 위원의 여성 할당제 | 12.8 | 0.9 |
| | 가족경영협약제도 | 7.4 | 0.3 |
| | 농업경영체 등록 | 16.1 | 3.6 |
| 사업 |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 | 33.5 | 3.8 |
| | 여성농업인대회 | 49.8 | 4.8 |
| |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지원사업 | 38.9 | 0.4 |
|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 22.8 | 1.6 |
| | 마을기업 및 농촌 체험마을 지원 | 37.7 | 4.3 |

주: 65세 미만 여성농업인 771명의 조사 결과임.

자료: 정은미 외(2013).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 방안(2/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경영체로 인정받으려면 조세상의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함. 우리나라 농업경영체는 인증기준이 지나치게 간단하며 확인하기 어려운 요건을 포함하며, 농업 관련 과세체계가 일관성이 없고 세율이 누락되기도 함

4.2.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정책 방향

□ 성인지적 관점에서 농업정책과 예산 수립 시 여성농업인을 우대

- 여성이 살기 좋은 농촌사회를 위해, 여성농업인이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통해 우대하는 것이 여성농업인 정책의 핵심임
 - 가계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농가, 남녀차별이 남아있는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이 재량껏 능력을 발휘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여성농업인 정책의 목적임
- 여성농업인 정책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독 정책보다 농업정책 중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농업인을 우대하는 것이므로 관련 부서·부처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함
 - 행정 속성상 타 부처·부서의 정책 및 예산 수립에 성인지적 관점을 지속적으로 권유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여성농업인 우대 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 있는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됨
- 행정(농식품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 농정과)은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여하는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여성농업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임
 - 그러므로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을 위해 원활한 정책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에서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를 둘 것인가, 아니면 상부의 특별위원회로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여성농업인 수요에 맞는 지역밀착형 정책 개발

- 정책 수요자인 여성농업인은 연령, 규모, 농한기간, 지역에 따라 정책 수요에 편차가 있음
 - 여성농업인 정책 수요를 몇 가지 정책 사업으로 담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 특성 및 여성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지역밀착형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함
 - 지역밀착형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함으로써 역으로 농정 책임자에게 성인지적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여성농업인 정책은
단독 정책보다
기존 농업정책과 예산
수립 시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을
우대해야 함.
또한 여성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지역밀착형 정책
개발과 실천을 통해
성인지적 예산 편성의
성과를 가시화해야

”

“

여성농업인 정책
 목표는
 여성이 살기 좋은
 농촌사회 만들기임.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의
 가장 큰 당면문제인
 과중한 노동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농업인턴제 확대가
 시급히 요구됨

”

- 지역밀착형 여성농업인 정책의 추진 주체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단체 등 3주체임
 -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획일적인 정책 사업보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에 주력하며 정책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얻는 효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특히 행정이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이해관계자의 협력은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임
 -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의 2·3차 소득사업에 참여 의향이 있는 여성농업인의 기술 및 인식 수준을 고려하여 기술 및 전문 교육, 창업 및 사업 컨설팅에 주력해야 함
 - 여성농업인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상향식 정책 제안이 필요함. 농업·농촌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불편함은 단체를 통해 문제제기하고 권리를 요구해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그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권리향상을 위한 책임 인식이 공유될 수 있음

4.3.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과 삶의 질 향상 대안

□ 여성농업인이 살기 좋은 농촌사회 구축

- 여성농업인 정책은 농업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이 경영인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높여 여성이 살기 좋은 농촌사회를 만드는 것임. 이것이 곧 건강한 농업경영체를 만들고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임
- 또한 여성농업인이 과중한 노동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여가를 활용한 취미생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이 필요함

□ 정책대안 1: 농업인턴제

- 여성농업인이 당면한 문제 중 과중한 노동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지역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여성농업인을 돕는 제도, 즉 여성농업인의 노동량을 줄이는 제도가 필요함
 - 현재 농가도우미 제도의 확대가 필요함. 다만, 도우미란 용어를 인턴으로 바꾸고 도시 인적자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숙식이 가능한 인프라 제공이 요구됨

- 농촌에는 고급 노동력이 부족한 반면, 고급 노동력을 갖춘 귀농인은 농업에 도전할 기회, 농업기술을 이전받을 기회를 만나기 어려움
 - 현재 수요가 큰 귀농인턴제도에 지원이나 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임
- 한편,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는 요즘, 농업·농촌의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데 청년의 아이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농업인턴제도 고려해야 함
 - 현재 농업인턴제는 청년이 농가의 경영에 도움이 될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 농가가 새로운 경영개선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유도하는 방식임

□ 정책대안 2: 여성농업인 창업과 협력사업 지원

- 여성농업인의 사회 활동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자신만의 경제력, 경제적 자립성이 필요함
 - 현재 하고 있는 농업활동 중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을 발굴하여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견하고 경영자로 성장할 기회를 찾아야 함
- 여성농업인을 경영인력으로 육성하는 방법은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자본의 종류별로 단계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임
 - 경쟁력 있는 중규모 이상 농가의 여성농업인의 경우는 창업에 필요한 기술, 지식, 홍보 방법 등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며, 일정 기간 후 스스로 창업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독자적인 창업이 어려운 중소규모, 고령농, 귀농자에게는 중간 지원조직을 통한 물적·인적 지원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함. 전북 완주의 로컬푸드 지원사업처럼 마을단위 협동농장, 농산물 가공사업을 만들고 사업 방법을 지원하는 것임
- 창업과 관련한 지자체의 지원은 사실 물적 지원보다 제도개선, 서류 구비와 같은 지원이 필요함
 - 농가 소규모 가공이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허가를 간소화해야 함

“

여성농업인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경영능력과 사회자본
확충의 기회를
제공해야

”



2015년

- 제105호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정은미)
- 제104호 할랄 농식품의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박기환)
- 제103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현)
- 제102호 한·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 제101호 2015년 주요 농정이슈(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2014년

- 제100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99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 제98호 한·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 제97호 발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정필, 국승용, 문한필)
- 제96호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어명근, 이병훈)
- 제95호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박성재)
- 제94호 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송미령, 권인혜)
-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 제90호 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박준기, 김미복)
- 제89호 한·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 제88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 제86호 한·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2013년

- 제82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립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송주호)
-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박준기)
-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 제56호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송미령)
- 제55호 국내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54호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 제53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김성우, 노호영)
- 제51호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정민국, 문한필)
-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지인배, 허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박현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KREI 농정포커스 제105호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5. 6. 26.
발 행 2015. 6. 26.
발 행 인 최세균
편집위원 김홍상, 김병률, 박준기, 성주인, 우병준,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02-2269-5523~4 dec5523@hanmail.net

ISBN: 978-89-6013-744-8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